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주된 항목들의 핵심 요점들

(목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더할 나위 없는 보배로움

성경: 벰전 1:7, 19, 2:4, 6-7, 3:4, 벰후 1:1, 4, 빌 3:8-9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 — 마 23:16-26, 삼상 16:7, 눅 16:15, 9:54-56, 벰전 3:4.

A. 믿는 이들의 합당한 가치관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다음의 방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1. 주 예수님의 가치 — 시 118:22, 벰전 2:7.
2. 십자가의 말씀의 가치 — 고전 1:18, 벰전 2:24, 3:18.
3. 사람의 일상 필수품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의 가치 — 마 6:32-33, 벰후 1:1, 11, 2:5, 3:13.
4. 그들의 친척과 비교되는 주 예수님의 가치 — 마 10:37-38, 눅 18:26-30, 벰전 1:1, 17, 2:11상.
5. 온 세상과 비교되는 사람의 혼의 가치 — 마 16:26, 4:8-11, 계 18:13, 벰전 4:19.
6. 죄의 심각성과 결과와 비교되는 그들의 몸의 가치 — 마 18:8-9, 벰후 3:10-13.
7. 주님의 노예가 되고 서로에게 노예가 되는 것과 비교되는 계급적인 지위의 가치 — 마 20:25-27, 벰전 2:16, 벰후 1:1.
8. 땅에 속한 보물과 비교되는 공의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가치 — 욥 22:23-28, 마 12:18-21, 사 42:1-4, 벰전 1:18-20.
9. 보이지 않는 보상과 비교되는 죄의 쾌락의 가치 — 히 11:24-27, 벰전 1:8-12, 벰후 1:8-11, 2:20-22.
10. 모든 것과 비교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 — 빌 3:7-8, 벰전 1:8, 벰후 1:2-3, 8, 2:20, 3:18.

B.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바뀌어, 계속해서 우리의 지극히 뛰어난 몫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전 존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빛을 구해야 한다 — 막 9:7-8, 고후 2:10, 4:7, 벰전 1:8.

C.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 렘 15:19, 참조 16절.

1. 우리는 반드시 매끼 먹는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서, 양육하는 젖과 신선한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의 실재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을 맛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 욥 23:12, 벰전 2:2-5, 시 119:103, 출 3:8, 신 8:8, 아 4:11상.
2. 우리는 반드시 땅에 속한 모든 재물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인,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분배할 수 있다 — 시 119:72, 9-16, 엡 3:8, 고후 6:10, 벰전 4:10-11.

II.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에게 보배이시다 — 벰전 2:7, 빌 3:8-9.

- A.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께 책망을 듣고 비참하게 실패했을지라도,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목자이신 주님을 여전히 따를 정도로 주님께 매혹되었다(마음이 빼앗기고 사로잡혔다) — 눅 5:8-11, 막 14:67-72, 16:7, 요 21:15-22, 벨후 1:14-15.
- B. 베드로는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서 변형되실 때에 그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으며, 그분의 위엄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 벨후 1:16-18, 참조 벨전 5:1.
- C.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위엄 있는 분'(사 33:21)이시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재판관과 입법자와 왕(사 33:22)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주(벨후 1:1)와 모든 것의 주님(벨전 3:22, 행 2:36)이신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누림으로 우리 안에 분배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계 22:1).

III.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보배로운 돌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 벨전 2:4, 6-8.

- A.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집,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를 살아 있는 돌들이 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 — 행 4:11-12, 엡 2:20-22.
- B. 모든 것을 포함한 살아 있고 보배로운 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 마 21:42, 44, 행 4:10-12, 사 28:16, 엡 2:19-22, 숙 3:9, 4:6-7, 단 2:34-35.

IV.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우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했다 — 벨전 1:15, 18-19.

- A.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는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 자신 안으로, 거룩한 본성을 지니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인도함으로써, 우리를 모든 생활 방식에서 거룩하게 하여 그분의 거룩한 제사장 체계와 거룩한 성이 되게 한다 — 벨전 1:2, 15-17, 엡 1:4, 계 21:2, 16.
- B.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큰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 오시고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러한 인식에 의해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거룩한 생활 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 벨전 1:15-19, 행 20:28, 참조 사 11:2.

V.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 벨후 1:1, 4, 비교 사 42:6, 히 8:8-12.

- A. 주님의 보배로운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잔이신 그분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모든 약속들의 실제이신 그분을 누린다 — 행 4:10-12, 시 116:12-13.
- B. 이러한 보배로운 약속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체현되어 있다. 우리는 그 약속들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신성한 본성을 누린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발전하여 생명의 성숙에 이룸으로써,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감을 누릴 것이다 — 벨후 1:4-11.

VI. 하나님은 모든 믿는 이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할당해 주셨다 — 벨후 1:1.

- A.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땅의 일부를 할당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어, 우리의 거듭난 영, 곧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믿음의 영이 되게 하셨다 — 수 13:6, 골 1:12, 벨전 3:4, 고후 4:13.
- B. 우리 모두는 질에 있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양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접촉하여 그분을 우리 안에 증가하시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 — 롬 12:3, 히 11:1, 5-6, 27, 골 2:19.

- VII. 우리의 믿음은 많은 고난을 통해 오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 보배롭게 입증된다 — 벨전 1:7.
- A. 우리는 불 같은 시련들을 통해 금 같은 믿음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 벨전 1:7, 계 3:18상.
- B. 믿음에 의해 이기는 생활을 하는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믿음의 결국(결과)인 혼의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된 보배들로 그분께 발견될 것이다 — 벨전 1:8-9.
- VIII. 우리는 반드시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물인 보배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의 보배로운 임재 안에 살면서 그분을 우리의 몫으로 누릴 때, 심지어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누리실 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적인 집과 거룩하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가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성취하신다 — 벨전 2:7, 3:4, 단 9:23, 10:11, 19, 고후 2:10, 시 16:5, 출 19:4-6, 벨전 2:1-9, 벨후 3:8, 11-12.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가치관의 변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물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는 그가 그 사물에 대하여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성전이 대부분 금으로 건축된 것을 보고서 이 성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한 것을 본다. 어떤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드리진 소,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보고서 제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와 양, 비둘기 등은 귀중히 여긴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따라 박하, 회향, 근채 등의 십분의 일을 드리지만, 율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 곧 의와 긍휼과 신실과 같은 것들은 실행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무엇에든지 아주 조심하여 심지어 하루살이조차도 걸러 내지만, 낙타는 삼켜 버린다. 어떤 사람은 급히 그릇을 사용할 때, 그릇의 겉만 깨끗이 닦고 그릇 속은 더러운 것이 있는 채 그대로 둔다. 당신은 새 신자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겠으며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무지하고 눈멀었으며, 가장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참된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가치관은 다 틀린 것이다.

참된 믿는 이에게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함

어떤 사람이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 그의 모든 가치관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믿는 이들마다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일종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귀하게 알고 있던 것이 지금은 귀하지 않고, 이전에 귀하지 않던 것이 이제는 다 귀하다. 이것을 일컬어서 가치관의 변화라고 한다. 무릇 가치 판단에 변화가 없으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믿는 이들의 가치관의 변화

은 성경의 대부분이 다 가치관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성경 구절들은 갓 믿은 형제자매들에게 빛이 될 수 있으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몇 개의 예를 들어 형제자매들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 주고자 한다.

주 예수님의 가치에 대하여

먼저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말한 것이다. 건축자들의 관점에서는 이 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버린 것이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버려진 돌이 선택되어 새롭게 세워진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은 반드시 적어도 두 면 혹은 세 면이 평평해야 한다. 사실상 모퉁이 돌은 여섯 면 전체가 평평해야 한다. 유대인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돌을 귀하게 여기시어, 그분의 구원을 건축하기 위해 이 돌을 사용하셨다. 이 두 가치관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새 신자들이 가치관의 변화를 겪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으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이전에 가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지금은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보게 해야 한다. 이전에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날은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긴다.

십자가의 말씀에 대하여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십자가는 원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던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었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존중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십자가에 대한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를 말해 준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십자가를 유용하게 보지 않았지만, 주님을 믿은 후에는 오히려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스럽고 귀한 것으로 보게 된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즉시 가치관이 변하며, 십자가의 구원을 귀히 여기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생활필수품의 비교

셋째로, 마태복음 6장 32절과 33절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사람이(특별히 가난한 사람)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매일의 필요를 잊어버릴 수 없었다. 의식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늘 가장 큰일이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론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믿자마자 돌이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의 왕국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이 마치 어떤 사람이 땅에 묻힌 보화를 보고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산 것과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천국이라는 보배를 발견하시고서 자신과 모든 것을 버려 이 보배를 사신 것을 가리킨다. 주님은 천국을 귀한 것으로 보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의 귀함을 보지 못한다. 오직 주님의 안목을 가진 믿는 이들만이 천국의 귀함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아직 주님을 믿기 전에는 생활이 어려울 때 옷과 음식을 얻는 것이 그래도 쉬운데, 이것은 그의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없으므로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불의한 방법으로 생활의 필요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믿은 후에는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만일 그가 여전히 옷과 음식을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비록 밥그릇을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잃어버린다. 또 다른 한 면으로 만일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는 얻을 수 있지만 밥그릇은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옷과 음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중하게 갓 믿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이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귀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의복과 음식이 몸을 위하

지만, 우리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주님과 가족의 비교

네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부모와 처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이다. 주님과 비교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그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임했을 때, 즉 이 양자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론 사람은 틀림없이 귀한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어느 것이 귀한가? 우리는 반드시 형제자매들에게 귀한 그것을 알도록 해 주어야 한다. 당신은 갓 믿은 사람에게,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들이 분명하게 대답하지 않는다면, 장래 유혹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이다.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신자들에게, “만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나 처자들과 나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주님을 위하여 당신은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택해야 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물론 가족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바이지만,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은 가족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사람의 혼과 세상의 비교

다섯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 생명을 바꾸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람의 혼을 온 세상과 비교하고 있다. 과연 혼이 귀한가 아니면 세상이 귀한가? 사람들은 늘 세상의 귀함을 보지만, 혼의 귀함을 보지 못한다. 오늘날 사탄은 사람의 혼을 원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의 혼을 팔아 버리고자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기 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큰 잔치의 유혹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의 유혹에 굴복된 것이다. 불신자에게 혼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그러나 주님은 온 세상으로도 사람의 혼을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단 한 번 사탄은 높은 대가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사탄이 주님을 산 위로 이끌고 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고는 주님이 한 번만 그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그분께 주겠다고 한 것이다. 온 성경에서 이때 한 번 사탄이 지극히 높은 대가를 지불하여 사람의 혼을 사고자 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사탄은 성공하지 못했다. 만일 이렇게 한 차례 사탄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경배하면 온 세상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이것은 완전히 가치관의 문제이다. 그는 혼을 버리고서 세상을 얻어야 하는가, 아니면 혼을 얻고서 세상을 버려야 하는가? 오늘 사탄은 세상을 가지고 우리의 혼과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그다지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 그는 단지 작은 이익과 값싼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 다섯 되를 적게 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 쓸 다섯 되로 인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발람이 이득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새 신자들에게 정직함이 금과 세상과 쌀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혼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갓 믿었을 때, 당신은 처음부터 그가 가치관에서 변화가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하며, 그로 하여금 바른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것이며, 이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몸과 죄의 비교

여섯 번째,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 내어 던져

버리십시오.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내어 던져 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계헨나 불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가치관의 변화를 본다. 어떤 사람은 세상은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몸은 귀하게 여긴다. 욥기 2장 3절과 10절에서 사탄이 처음 욥을 시험한 후에 욥은 여전히 순전함을 지켰다. 그러나 사탄이 두 번째 욥을 시험할 때에는 바로 그의 몸을 상하게 했다. 그 후에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실패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기 몸을 지극히 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의 이 부분에서 주님은 몸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몸을 보전하는 것이 바로 죄악을 보전하는 것이 될 때,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 차라리 몸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실족하는 것이 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욱 엄중한 것임을 말해 준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가치관이 변해야 하며, 반드시 실족하는 것이 엄중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죄악된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로 그의 손과 그의 눈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일단 주님을 믿으면, 처음부터 범죄가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그로 보게 해야 한다.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은 단지 비유일 뿐이며, 그것은 죄를 제거하는 고통이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내는 그러한 고통과 같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범죄의 엄중함을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죄를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몸의 지체를 잘라 내는 정도로 엄격해야 하며, 자신을 죄 없는 정결한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지위에 대하여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방인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고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의 일이다. 그러나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믿는 이들 중에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 곧 지위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왕이 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 그는 반드시 섬기는 이를 크게 보고, 종이 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하며, 반대로 대인이 되거나 권세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을 경하게 여겨야 한다. 지위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귀히 여기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은 바로 한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의 지위가 높아지며 커진다는 것이다. 교회 중에서 누가 크나를 따지는 것은 다 사회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가져온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 가운데서 만일 사람마다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크게 생각한다면,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며, 교회는 또한 축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갖 믿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거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단 구원받고 나면 그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며, 기꺼이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가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크고 으뜸 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분명한 인식을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중심 사상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이다. 만일 모든 새 신자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교회는 전진할 길이 있을 것이다.

의의 가치에 대하여

여덟 번째로, 욥기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

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24절부터는 23절에서 말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보배, 황금, 귀한 은은 다 23절의 불의와 연관되어 있다. 사람들이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티끌로 여기고 계곡의 돌에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불의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며, 여호와를 그의 기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것 또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의 유혹의 문 앞에서 있다면, 당신은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겠는가?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줄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속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를 그의 즐거움으로 택할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먼저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택한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이다. 다음으로는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 주실 것인데, 이는 주 여호와께서 그의 결정과 선택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빛이 그의 길을 비추어 그의 모든 발걸음이 빛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한 결과이다. 우리는 조만간 반드시 새 신자들을 그의 원래 환경으로부터 구출해야 하며,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으로부터 빼내야 한다. 환경이 임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그들이 보배와 황금과 귀한 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의의 가치는 모든 보배들의 가치보다 뛰어나다.

죄의 즐거움과 보이지 않는 상급의 비교

아홉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누림과 고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말한다. 모세는 여기에서 다른 한 가지를 보았는데,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누림이 다 죄의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보았다. 모세는 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으며, 온 땅에서 가장 부요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능욕도 다 받기를 원했는데,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상급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든 것들의 비교

열 번째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은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 역시 그의 가치관이 변했음을 볼 수 있다. 그는 이전에 그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바울은 왜 유익하던 것을 버렸으며,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으며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변화이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해야 입이 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자. 그곳의 말씀은 우리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만일 오늘 당신과 내가 가치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분별하여 그분의 입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가치관이 철저히 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위치만 니 전집, 60권, 고령 훈련 기록(2), 236-247쪽)*